

샤이니 종현 첫 정규앨범 '좋아' 발표

수록된 9곡 전부 작사·8곡 작곡 "제가 즐거운 음악을 하고 싶어요"

24일 발표한 그룹 '샤이니' 종현(28)의 첫 번째 정규앨범 '좋아'는 그가 만든 작은 세계에 사는 남자 이야기다. 지난 23일 서울 논현동 플라톤 콘서트홀에서 열린 쇼케이스에서 종현은 "이번 새 앨범은 제가 만든 캐릭터를 연기해 나가면서, 제가 가진 세계관을 설명할 수 있는 앨범"이라고 소개했다. 수록된 9곡 전부를 작사하고, 그 중 8곡을 작곡한 것도 그 이유다.

주인공은 "날렵하고, 윗트 있고 조금 능글맞은 남자"다. 가상의 '종현이'를 설정하고 그가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면 어떻게 마음을 표현할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까 이런 궁금증을 상상 속에서 구체화했다. "한 사람이 이 아홉 곡을 다 부른다고 생각했어요.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랑을 시작하고 싶어 하는 사람의 마음을 담려고 했습니다."

앨범에는 낮 뜨겁지만 삶지 않은 사랑 노래 '우주가 있어' '카테일' '베드와 몽환적인 분위기'로 독특한 보컬의 강점을 살리는 문(Moon) '오로라(AURORA)', 결혼을 앞둔 신랑신부의 커플링 곡 '드레스업(Dress Up)' '슈트업(Suit Up)' 등 이식했다.

"곡마다 장르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분위

작업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프로듀싱에서 물러나는 것 일수도 있지만 더 좋은 시너지를 만드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욕심은 없어요."

타이틀 곡 '좋아'도 퓨처 베이스를 가미한 알렉트로 펑크 장르의 곡이다. 여름에 시원하게 들었으면 하는 마음에 신스 사운드 등을 가미했다. 요즘 "핫한 힙합뮤지션 크러쉬, 필터, 종현의 작곡팀 위프리카 등과 함께 만들었다."

"첫 번째 미니앨범에 넣을까 생각했다가 아껴뒀던 곡입니다. 다음 앨범에 타이틀 곡으로 하고 싶었거든요. 시원한 분위기와 계절이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제가 즐거운 음악을 하고 싶어요. 저의 감정을 온전히 담고 있는 음악, 제 감정을 쏟아 부어서 만든 음악을 계속해서 하고 싶어요. 순위에 휘둘러다보면 다른 걸 담게 될 것 같아서 제가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길을 천천히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만든 이번 앨범에 스스로 내린 점수는 "6.5점"이다. "손을 떠나는 순간, 더 이상 수정할 수 없을 때 자꾸 아쉬운 부분이 보인다"는 거다.



지난 23일 서울 논현동 플라톤 콘서트홀에서 열린 쇼케이스에서 종현은 "이번 새 앨범은 제가 만든 캐릭터를 연기해 나가면서, 제가 가진 세계관을 설명할 수 있는 앨범"이라고 소개했다.

"이런 아쉬움이 다음 앨범에서 더 좋은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즐겁고 재밌게 작업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들으면 좋은 앨범이 될 것 같아요."

한편, 종현의 첫 번째 정규앨범 타이틀곡 '좋아'는 멜론, 엠넷, 벅스 음레뮤직, 소리바다, 지니, 네이버뮤직 등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상위권에 올랐다.

평창올림픽법 개정안 국회 통과 대회 준비 '탄력'

지난해 5월 발의된 '평창올림픽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회 준비에 탄력이 예상된다.

24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기부금품 접수 절차 특례 등의 내용을 담은 평창올림픽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의결된 법안은 정부(법제처)로 이송된 뒤 국무회의를 거쳐 6월 초에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부금품 접수 절차 특례 ▲차고지 등 수송시설 조성사업의 개발행위허가 특례 ▲장애인동계올림픽을 동계패럴림픽으로 용어 개정 등이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조직위는 자체 기부금품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기부금품의 효율적이고 적기 사용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분기별로 개최되는 행정자치부 기부금품위원회를 거쳐야 접수된 기부금품을 사용할 수 있지만, 법안 개정으로 접수 절차 등이 간소화된 것이다.

또 현행 법령상 제한을 받았던 차고지와 환승주차장 등 수송시설 조성사업 역시 도지사 시행사업으로 간주하는 개발행위허가 등의 특례가 적용돼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민근기자

이신바예바 "리우 못가면 제소하겠다"

러시아 육상이 도핑문제로 국제대회 출전이 막힌 가운데 여자장대높이뛰기의 스타 '미녀새' 엘레나 이신바예바(34)가 자신이 리우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하고 러시아 육상에 대한 제재 조치를 풀어주지 않으면 제소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이신바예바는 28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 있는 취재진과 화상 인터뷰를 통해 "이(국제대회 출전 제재) 인권을 침해하는 직접적인 행위이며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 육상은 국가적, 조직적으로 도핑을 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11월 IAAF(국제육상경기연맹)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각종 국제대회 출전이 막혀 있다. IAAF는 다음달 이사회를 열어 러시아 육상에 대한 제재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이신바예바는 "우리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온다면 나는 개인적으로 인권 침해를 이유로 국제 사업 당국에 제소할 것"이라며 자신이 승소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신바예바는 "이 같은 상황이 화가 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훈련뿐"이라며 러시아의 젊은 선수들이 이번 리우올림픽에 나가지 못하고 2020년까지 4년을 더 기다린다면 선수로서의 생명을 잃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근기자

NBA 토론토 동부 결승 4차전 승리...2승2패 시리즈 원점

클래블랜드 105-99 꺾어 라우리 맹활약 홈 2연승

토론토 랩터스가 접전 끝에 클래블랜드를 꺾고 동부지구 결승 시리즈를 알 수 없게 만들었다.

토론토는 24일(한국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에어캐나다 센터에서 열린 2015~2016 미국프로농구(NBA) 플레이오프 클래블랜드 캐벌리어스와의 동부 콘퍼런스 결승(7전4선승제) 4차전에서 105-99로 승리했다.

클래블랜드 원정에서 2연패를 당했던 토론토는 홈에서 2연승을 거두며 시리즈 전적 2승2패로 동률을 이뤘다.

토론토는 1, 2차전 극도로 부진했던 카일 라우리가 3차전 컨디션 회복한 후 4차전에서는 눈부신 활약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라우리는 3점슛 4개 포함 35점 5리바운드 5어시스트 3스틸로 공수에서 맹활약을 펼쳤다.

더마 드로잔도 3차전 32점 활약에 이어 이날도 32점을 넣는 등 두 경기 연속 30득



토론토는 24일(한국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에어캐나다 센터에서 열린 2015~2016 미국프로농구(NBA) 플레이오프 클래블랜드 캐벌리어스와의 동부 콘퍼런스 결승(7전4선승제) 4차전에서 105-99로 승리했다.

점 이상을 기록하며 팀이 시리즈를 원점으로 돌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토론토는 이번 포스트시즌에서 홈에서 치른 10경기 중 8경기를 승리하며 안방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클래블랜드는 이번 포스트시즌 10연승 행진 뒤 2경기 연속 패했다.

토론토는 플레이오프 들어 폭발한 클래블랜드의 외곽포를 봉쇄하는데 성공하며 전반을 57-41로 크게 앞서며 손쉬운 승리

가 예상했다.

하지만 후반 들어 클래블랜드에게 잇따라 3점포를 얻어 맞으며 점수차가 좁혀졌다.

4쿼터 시작하자마자 체닝 프리야에게 연속 3점슛을 허용해 78-77로 1점차까지 추격을 허용했다.

근소하게 이어가던 리드도 3분여가 지났을 무렵 르브론 제임스에게 연속 득점을 허용하며 역전을 당하고 말았다. 이후 엄치라투키라하며 접전을 이어가던 양팀은 역전을 주고 받았다.

4분여를 남기고 드로잔의 점프슛으로 다시 리드를 가져온 토론토는 이후 클래블랜드에게 3점슛 1개만을 내주는 동안 차곡차곡 점수를 쌓아 6점차 승리를 완성했다.

클래블랜드는 제임스가 29점 9리바운드 6어시스트를 기록했지만 승부차기 4쿼터 막판 침묵했다. 카이리 어빙도 26점을 올렸지만 팀 패배를 막지는 못했다.

더욱이 클래블랜드는 대부분의 기록에서 토론토보다 앞섰지만 막판 집중력에서 뒤지며 경기를 내줘 아쉬움을 남겼다.

/김민근기자

MBC '무한도전' 한국인이 좋아하는 TV프로그램 1위

MBC TV '무한도전'이 20개월 연속 '한국인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1위로 뽑혔다.

여론조사회사 한국갤럽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에게 요즘 가장 즐겨보는 TV프로그램을 물은 결과다.

'무한도전'은 5월 한 달 동안 직장인 상황극 '무한상사'와 '웨딩상사' 특집 등을 방송하며 선호도 11.1%로 1위 자리를 지켰다.

종영을 앞둔 KBS 2TV 월화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는 4.7% 선호도를 기록하며 2위로 올라섰다. 12위였던 지난달에 비해 3.3%포인트 급상승한 수치다. 40대 남성 선호도가 특히 높았다.

이 외에도 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인 tvN 월화드라마 '보이 오해영'은 점점 오르는 시청률과 함께 방송 3주 만에 12위에 올랐다. 표본오차 ±3.1%포인트에 신뢰 수준 95%다.

/이성주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활용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